

고센시 지정 천연기념물

오사와 종유동

위 치 고센시가리와(제羽)
지정 날짜 1993년 11월 19일

일본에는 많은 종유동이 있지만, 대부분의 종유동은 지금부터 수억 년 전 고생대에 생물의 유해가 퇴적되어 형성된 석회암이라는 단단한 암석 속에 만들어졌습니다.

그러나 오사와 종유동은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전 신생대 신제 3 계 신선세라는 새로운 시대에 모래가 퇴적되어 형성된 사암 속에 만들어졌습니다.

이러한 새로운 지층에 생긴 종유동은 드물며, 일본에는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
이 부근의 사암은 오오사와석이라 불리며, 석회암이 부서진 모래가 굳어져 만들어졌습니다.

석회암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, 지각 변동으로 생긴 균열에 빗물이 스며들어 석회분을 녹임으로써 종유동이 형성되었습니다.

오사와 종유동은 북동~남서·북북동~남남서 두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.

이 두 방향은 지층의 균열 방향이므로, 이 산이 어떤 힘을 받아 융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.

종유동 내에는 많은 종유석과 석순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, 지금은 천장이나 벽 등에 아주 조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

일반적으로 종유석이나 석순의 성장 속도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수 센티미터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

남은 것은 소중히 여기고,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.

2025년 11월 고센시 월교육위원회

[주의]

- 종유동 내에는 조명이 없습니다. 반드시 손전등이나 헤드라이트를 휴대하고 위험 방지에 힘써 주십시오.
- 통로는 좁고 발밑이 미끄러우므로, 더러워져도 괜찮은 복장이나 장화를 착용하시길 권합니다.
- 종유석 보호 및 안전상의 이유로 통로 외의 곳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.
- 종유석의 성장에는 수천 년, 수만 년이 걸립니다. 두드리거나, 걷어차거나, 손상시키지 마십시오.
- 종유동 내에는 박쥐가 서식하고 있으니 주의하십시오.
- 동굴 내의 자연물은 생물을 포함하여 일체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.